

5일 Market Index			
↓ 코스피	4004.42	↓ 코스닥	901.89
	(-117.32)		(-24.68)
↑ 금리 (미국 9년)	2.767	↑ 환율 (원·달러)	1445.30
	(+0.038)		(+7.40)

AI 고평가 공포... 코스피·원화 휘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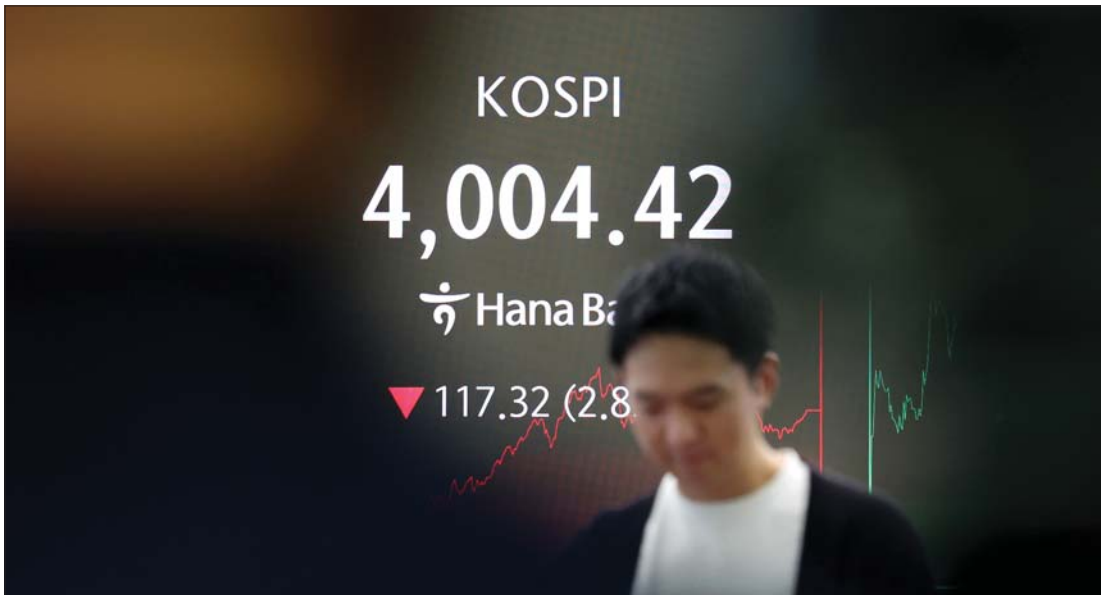
外人 2.6조 넘게 매도 폭탄
7개월 만에 사이드카 발동
장중 3867.81까지 떨어져
삼성전자·하이닉스株 급락
원·달러 환율 1449.4원 마감

‘3867.81(장 중), 4004.42(종가)’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자들의 탐욕이 코스피를 무너뜨렸다. 외국인들이 2조6000억원 넘게 팔아치운 덕분에 약 7개월 만에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5일 한국거래소는 오전 한 때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지난 4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증시가 크게 출렁인 후 올해 두 번째 사이드카다. 이어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도 올해 처음으로 발동됐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전일 증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코스닥은 코스닥 150선물지수가 6%, 코스닥 150지수가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 지속시 발동된다.

〈관련기사 3면〉

이날 117.32포인트(2.85%) 하락한 4004.42에 마감한 코스피는 장 중 3867.81을 기록하기도 했다. 증가 기준 3900선이 무너진



코스피가 전 거래일(4121.74)보다 117.32포인트(2.85%) 내린 4004.42에 마감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 광판에 증가가 표시되어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26.57)보다 24.68포인트(2.66%) 하락한 901.89,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증가(1437.9원)보다 11.5원 오른 1449.4원에 주간 거래를 마무리했다. /뉴시스

건 8거래일만이다.

간밤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AI) 고평가 우려 속 하락하며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다우존스(-0.53%), S&P 500(-1.17%), 나스닥(-2.04%) 등 3대 지수는 동반 하락했다. 미국의 대표 AI 수혜주로 꼽히는 팔란티어는 고평가 우려 속에 7.9% 급락 마감하기도 했다.

일본 닛케이225(-2.50%), 대만 가권지수(-1.42%) 등 AI고평가 논란에 무너졌다.

이날 증시 버팀목은 동학개미였다.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3

조원 넘게 순매수세를 이어갔던 개인은 이날도 2조4142억원 순매수하며 하방을 방어했다. 기관 또한 1497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이날 2조6072억원 순매도했다. 11월들어 사흘 동안 6조원 가량을 팔아 치웠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각각 7.8%, 9.2%씩 빠졌으나, 이후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줄인 것으로 보여진다. 증가 기준 삼성전자는 4.10% 떨어진 10만600원, SK하이닉스는 1.19% 하락한 57만9000원에 마감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강

력한 강세장이라고 전제 한 뒤 “팔란티어발 AI고평가 논란과 엔비디아 블랙웰 칩 대중 수출 통제 등에 그동안의 고점 부담감이 부각됐다”며 “국내의 실적 시준과 맞물리며 밸류에이션 논란에 직면했고, 차익실현 압력 증가 및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원화 값도 급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1.5원 뚝 1449.4원에 마감했다. 7개월여만에 최고치다. 장 중에는 1450.0원을 찍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산업의 판도 뒤바꿀 핵심동력 ‘피지컬 AI’ 새 패러다임 시대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이란 주제로 오는 11월 19일(수요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시 한번 획기적인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SW)란 한계를 깨고 물리적 현실과 결합하는 ‘피지컬(Physical) AI’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도 피지컬 AI를 ‘AI 모델의 완성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피지컬 AI는 조만간 모든 산업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SW 형태의 AI를 넘어, 센서를 통해 주위 현실 세계를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물리적 장치를 움직이며 경험을 학습하는 ‘몸을 가진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AI가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언어 영역에 한정됐다면, 피지컬 AI는 AI가 스스로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환경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는 피지컬 AI의 이해에서부터 산업별 혁신 사례, 휴머노이드와 로봇의 진화 등 피지컬 AI의 등장으로 인한 산업 지형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
- 일 시: 2025년 11월 19일(수) 오후 2~5시
- 장 소: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기조강연: 유태준 한국피지컬협회장(마음AI 대표이사)
- 강 연: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전무)
- 강 연: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이사
- 강 연: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CTO
- 강 연: 김하늘 에임인텔리전스 이사
-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참가신청: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문의: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中企 ‘3자 승계’ 문 연다... M&A형 특별법 추진

韓 장관 취임 100일 간담회
“中企 승계 패러다임 전환
중기·소상공인 성장 집중”

중소기업 창업 1·2세대들이 승계 걱정을 다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안에 국회 입법을 통해 ‘(가칭)M&A형 기업승계 특별법’을 추진키로 하면서다.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제외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해 제3자에게 기업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3자 승계를 위한 온라인 M&A 중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5일 오후 서울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취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CEO의 36.8%가 6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됐다. 후계자

가 결정되지 않아 고민인 기업도 많다. 관련 특별법을 만들겠다.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면서 “이를 통해 인수자금 등 금융 투자, 중개 수수료 등 보조금, M&A 절차 간소화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겠다”고 밝혔다.

공공과 민관이 협력해 중소기업 승계를 위한 M&A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일본의 사례를 주로 차용했다. 이를 위해 회계·세무법인, 벤처캐피탈(VC) 등을 대상으로 M&A 중개기관 등록제도도 시행한다. 중기부 산하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승계지원센터 역할을 맡는다.

이날 한 장관은 향후 정책방향으로 ▲Again 벤처붐 ▲중소기업 스케일업 ▲활기찬 소상공인 ▲연결과 융합의 기업 생태계 조성을 꼽고 “취임 후 지난 100일간은 회복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벤처투자 시장 40조원 조성을 위해 민간의 자금 유입 촉진 뿐만 아니라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2배 이상 늘린다. 2035년까지 인 모태펀드 존속기간도 연장한다. 이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연내에 ‘(가칭)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도 발표한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K-양자산업 연합’ 공식 출범 양자기술 산업화·상용화 시동

삼성전자 등 34개 기관 참여
현장 중심 생태계 조성 착수

국내 양자기술이 연구개발(R&D) 중심 단계를 넘어 산업 현장 중심으로 이동한다. 정부와 산업계, 금융권이 손잡고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 ‘K-양자산업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자

동차, 한화오션, 효성첨단소재, LIG넥스원, 에코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수요기업과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범한 K-양자산업 연합에는 총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공급기업으로 대한광통신, 우리로, 우신기연, 마이크로인피니티, 한국첨단소재 등이, 수요기업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JW홀딩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4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정청래, “추경호 유죄 나오면 국힘은 100번이고 정당해산 감”
▲與 ‘대통령 공소 취소’ 촉구... 장동혁 “선거법 재판 재개해야”
/사진 뉴시스

▲한동훈 “李, 재판 재개땐 계엄할수도... 민주당이 막겠다고 약속하라”
▲천하람, 10·15 대책 행정소송 예고... ‘8개 지역 제외해야’

▲김종혁, “尹 관저 폭탄주 발언,, 대통령이 할 짓 아냐”
▲안규백 “원자력잠수함, 국내 건조 합당... 美 조선소는 시설·인력 부재”